

[미수취소액환(未受取少額換)]

출근하는 시간은 빗길이었다. 지하철 입구에서부터 줄곧 한쪽 손목에 힘을 주어 우산을 받쳐 쓰고는 있었지만,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 우산 속으로 이리저리 들이치는 비에 새로 산 다크브라운색 구두는 흠뻑 젖고 말았다. 건물 앞에 도착해 우산의 물기를 여러 차례 떨어내다 말고 주머니 속 담배를 꺼내어 한 개비 입에 물고는 불을 붙였다. 높다란 도심의 빌딩숲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전날 저녁 뉴스의 일기 예보에서 예측한 그대로 여름 장마가 이제 막 시작되려는 듯이 한결 무거워 보였다. 입에 문 담배 필터를 통해 느껴지는 비 오는 날 아침의 축축함이 입술을 통해 온몸으로 한껏 전해져 왔다. 손목시계를 슬쩍 들여다본 후 절반쯤 피우다 만 담배를 물이 흠뻑 고인 흡연 구역 재떨이 통 속으로 던져 넣고, 회사 건물의 입구를 지나 11층 사무실로 오르는 홀수 층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엘리베이터 앞에 모여 선 사람들은 눈인사를 한 뒤 침묵으로 일관하며 점등하는 불빛이 한 칸씩 내려올 때마다 엘리베이터의 숫자를 눈으로 세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무심코 그를 스치듯이 보았을 때만 해도 선뜻 그인지 알아보지는 못하였다. 11층에 막 도착을 했을 때 나를 뒤따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그가 내 뒤로 다가와 ‘구매 부서’ 위치를 확인하는 순간 그와 나의 눈이 잠시 마주쳤다. 은색 안경테에 희끗하게 벗겨진 앞머리 그리고 듬성하게 난 팔자 눈썹 라인. 전혀 그 인상이 낯설지만은 않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몇 초 동안 이어지자 이름 하나가 내 머릿속에서 불현듯 호명되었다.

“이기영……. 그래 이기영 상병이 아닌가?”

30여년 가까이 지나간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어느새 그도 많이 늙어 있었다.

그에게 구매 부서가 위치한 공간을 확인해 준 뒤 사무실 창가 쪽 내 자리에 앉아 노트북의 전원을 켜자 ‘윙’ 하는 소리를 내며 화면이 들어왔다. 퇴근 시간 이후 밤사이 들어 온 메일 확인을 일일이 하고 있을 무렵 같은 팀에 근무하는 김영미 대리가 내 자리를 찾았다.

“팀장님. 업체에서 제안서를 들고 오셨네요. 상담실로 안내해 드렸어요.”

이미 관련 공고가 나간 하반기 신규 프로젝트에 입찰을 원하는 지방의 신규 거래처에서 제안서를 들고 왔다는 이야기였다. 상담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그와 막 문을 들어서서는 나의 눈이 다시금 마주치게 되자 그에게서 어떤 당황스러움이 느껴졌다.

“아까 잠시 뵈었었죠? 비도 많이 오는데,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살짝 눈웃음을 띠고 정중하게 말하는 내 인사치레에 그는 양손을 크게 내어저으며 말했다.

“아니……. 아닙니다. 아까는 제가 몰라 뵈었네요. 다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지갑 속 명함이 서로 맞교환되고 내가 그의 이름을 재차 확인했을 때 역시 그는 당초 내 생각대로 이기영 상병이었다. 뒤따라 들어온 김영미 대리가 커피가 든 종이컵 세 잔을 나란히 탁자 위에 올려놓자 그는 컵을 들어 후루룩 한 모금 마신 후 갈색 봉투에 든 입찰 제안서를 주섬주섬 꺼내어 나와 김영미 대리에게 각각 한 부씩을 건네었다. 나는 제안서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 주었고, 김영미 대리는 설명을 하는 그와 내 표정을 번갈아 보며 살피다 이따금씩 제안서 위에 펜으로 동그란 마킹을 했다. 그의 10여 분 남짓한 설명이 대충 끝나고 내가 김영미 대리가 금번 새 프로젝트를 맡게 된 담당이니 몇 군데 다른 곳의 입찰서를 모두 검토한 후 회사에서 따로 연락이 갈 것이라 안내하고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을 때, 그도 뒤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었다.

“저기……. 팀장님. 혹시 ○사단 ○○부대 출신 아니세요? 포천에 있는…….”

“글쎄요.”

내가 잠시 긍정도 부정도 아닌 태도를 내어 보이자 그의 표정에서는 눈에 띄게 당황한 기색이 엿보였다.

“아……. 그렇죠? 아니시군요. 제가 그 부대 출신인데, 저와 같이 근무했던 분하고 인상이 많이 비슷하셔서……. 네……. 실례했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들어서자 새로 산 구두가 다 젖어 있다며 아내가 몇 차례 타박을 했다. 방과 후에 수학 학원에 갔던 아이들이 아직 학원에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라 집사람과 나 둘만의 저녁 식사를 조출하게 마쳤다. 새로 시작하는 종편 방송의 연속극을 보기 위해 거실에 앉아 있는 아내 옆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았다. 유리창으로 흘러내리는 빗방울이 ‘툭툭. 툭툭. 툭’ 하고 제법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 오늘 옛날 군대 생활할 때 같이 근무했던 사람 우연히 만났어. 거의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말이야.”

“웬일이래?”

내가 특하고 꺼낸 이야기에 집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드라마에 고정된 두 눈을 채 떼지도 않은 채 대답하는 아내에게 다소 서운한 감정이 들었지만, 나는 아내의 옆얼굴을 응시하다가 이내 거실 유리창으로 시선을 다시 돌렸다. 전조등을 켜 자동차 불빛이 이따금씩 집 앞 도로를 지나갈 때마다 빛의 망울이 방울방울 유리창 위에 맺혔다. 그 빛의 망울들은 오래 전 계절이 여름의 초입에 막 들어서고 있을 무렵 푸른색 군복을 입은 채 지내야 했던 시간의 나를 물끄러미 회상해 보게 만들었다.

○○부대를 타원형으로 빙 둘러싸고 있던 나무 울타리 밖 인삼밭을 빠져나와 기무부대 초소가 오른쪽으로 보이는 갈림길을 막 지나치면 법당까지 도보로 20분가량이 걸렸다. 매주 수요일 저녁 병사들은 번거로운 야간 점호를 피할 요량 등으로 일과 후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야간종교행사’에 앞다투어 참여를 했다. 돌아오는 길에 읍내 다방에 들러 커피 한 잔을 앞에 놓고 새로 전입한 다방 레지와 시시덕거릴 기회가 있는 교회 행사 대신에 나와 마음이 맞는 몇몇 병사들은 계급 구분을 하지 않고 사방이 조용한 밤의 법당을 찾았다. ○○사단이 운영하는 군 법당은 다소 외진 산 속에 위치한 까닭에 얼마간 오르막길을 오르고 내리는 일에 고단함이 있는지라 성당이나 교회로 나뉘는 대다수 종교 행사 참여자들이 꺼리는 곳이었지만, 예불을 마치고 내려가는 길에서 느껴지는 고적함과 그 공기의 상쾌함은 울타리 안에 즐곤 갇혀 지내야 하는 내 숨통을 다소나마 트여 주곤 했다. 더구나 대응전에 피워 둔 은은한 향불 냄새며, 법당 곳곳에 걸려 있던 초파일날 쓰고 채 치우지 않은 분홍색 연등의 행렬이 어둠 속에서 바람을 타고 반짝대는 모습은 전혀 종교에 관심이 없던 내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

예불 행사가 끝나고 산을 내려오던 시간 여름 해는 이미 산 아래로 깊숙이 내려앉아 있었고, 법당을 찾았던 다섯 병사들의 발걸음 소리와 두런두런한 말소리 그리고 길가 풀숲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만이 여름밤의 어둠과 우리들 사이의 경계를 선명하게 구분하고 있었다. 몇 개월 선임 군번인 김병덕 상병이 근처 가게에 들러 전화를 하고 가야 한다고 했다. 군대에 오기 전 테니스 코치를 하다 왔다는 그가 마침 일병에서 상병으로 새로 진급을 했던지라 관례에 따라 아

이스크림을 하나씩 돌리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해서 우리 일행들의 발길은 공중전화가 놓인 공병부대 앞 ‘노곡상회’ 가 있던 방향으로 나란히 향했다. 가게에 도착한 병사들은 가게 나무문 앞에 놓인 냉장고에서 각자 취향에 맞는 아이스크림 하나씩을 꺼내 들고는 봉지를 벗겨 입에 문 채 목덜미로 연신 흘러내리는 땀을 닦아 내었다. 그리고 자기 차례가 돌아오기를 말없이 기다렸다가 차례가 되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시작했다. 내 차례가 되어 집으로 전화를 걸었을 때 때마침 엄마가 전화를 받았다.

“많이 덥제? 괜찮나? 별일은 없나?”

엄마는 예의 걱정하시는 말투로 내 안부를 연거푸 물었다.

“항상 똑같죠. 뭐. 네. 네. 괜찮아요.”

엄마는 이러저러한 통화 말미에 돌아오는 토요일이 마침 내 생일인데 그날 면회는 힘들겠다고 하시며 얼마간의 돈을 소액환으로 바꾸어 보내셨다고 했다.

“돈 필요 없다는데, 왜 그러셨어요?”

통명스러운 내 투정에 엄마는 군대에서 나오는 밥 잘 챙겨 먹고 있다가 다가오는 휴가 때 어디 가족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오자고 하시며 전화를 끊으셨다.

각자 사연이 담긴 전화 통화를 끝낸 병사들이 부대로 막 돌아왔을 때 일석점호를 마친 내부반의 불은 이미 꺼져 있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옷을 간편복으로 갈아입고 세면장에서 찬물로 샤워를 한 후 침상에 간신히 누웠을 때 노란 전구 하나가 덜렁하게 매달린 내무반 취침 등불 아래서 당직 불침번 근무병은 바닥 여기저기에다 주전자로 물을 뿌렸다.

이튿날 아침 행정반으로 출근한 나는 부대 서무담당계인 이기영 상병에게 사단 사령부에 언제쯤 방문하는지를 물었다. 이튿에 한 번씩 사단 우체국에 들러 ○○부대로 보내지는 대부분 우편물을 수령해 오던 이기영 상병에게 사단 우체국이 있는 사령부에 들를 일이 있으면 내 명의로 도착한 등기 우편물도 잊지 말고 꼭 확인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기영 상병은 10월 군번으로 나보다 딱 11개월가량 먼저 입대한 선임이었다. 부대 인원 전체의 정기 휴가와 야간 근무등을 편성했던 그는 평소 성격이 다소 덜렁대는 편이었던지라 각 소대 야간 초소 근무자들에게 불평불만을 많이 듣고 지냈지만, 대부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듯 보였고, 나를 비롯한 행정반 후임들에게는 딱히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기영 상병은 그러겠노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 그리고 일주일이 다 지나가도록 그가 내게 따로 건네주기로 약속한 편

지는 영 소식이 없었다. 일주일이 지나가던 그 무렵 이기영 상병이 아침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내 쪽으로 왔다. “오늘 ○○시내에 업무 출장 나갈 일이 있는데 같이 나갈래? 부식 청구하러 오늘 밖에 안 나가?”

마침 사단 보급부대에 주간 부식 청구를 해야 할 일이 있었기에 나는 선뜻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럼 보급부대 들러서 일 먼저 보고 같이 가겠습니다.”

보급부대에서의 일을 일찍 마무리하고 이기영 상병과 미리 약속해 둔 버스 정거장에서 만나 ○○시내에 도착하자 시간은 이미 점심시간이 다 되어 있었다. 업무가 있다던 이기영 상병은 점심 식사를 먼저 하자며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의 중국요리 집으로 먼저 발길을 향했다. 식당 한쪽 자리에 앉은 이기영 상병이 주문을 하자 탕수육과 자장면 그리고 군만두 등이 한 상 차려졌다. 상병이 매달 받는 월급을 이미 훌쩍 넘어가는 금액이 청구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와 점심 값을 치른 이기영 상병에게 다소 빚을 진 마음이었지만, 이기영 상병은 다음번에는 더 좋은 데를 가자며 허허대며 웃었다.

엄마와 전화 통화를 한 지 이미 열흘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이기영 상병에게 부탁했던 내 우편물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다. 그가 매번 외부에서 업무를 보고 부대에 복귀를 할 때마다 물어보는 일도 이제는 불편하게 생각이 되어 그만두어야 했다. 한 날 사단 의무부대에 입실해 있던 부대 인원들의 식수 인원 통보서 전달 건으로 의무부대에 협의차 들렀다가 그날은 직접 사단 사령부에 들러 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사단 위병소에서 출입 신고를 마치고 사단 사령부 초입에 있는 군사우체국 건물로 걸어 올라갔다. 우체국 담당자에게 인사를 한 후 내 명의로 배달된 등기 우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하자 장부를 열람했던 담당자는 내 명의로 도착한 최근 우편물이 하나 확인이 되는데 지난주에 그건 이미 수령을 해서 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건네는 수령대장을 확인하자 설마하고 생각을 했던 대로 역시 이기영 상병의 이름이 등기번호 옆에 적혀 있었다. 부대로 복귀하는 길에는 분노를 동반한 배신감과 상실감 등으로 인해 갖가지 생각을 머릿속에 떠올려야만 했다. 얼마 전 이기영 상병과 ○○시내에서 함께 했던 점심 식사가 떠올라 자꾸만 속이 불편해졌다. 그와 같은 부대, 같은 사무실, 같은 내무반에서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하고 지내야 했던지라 내 생각은 마냥 쉽게 정리되지 않고 미궁 속으로 자꾸 빠져만 갔다. 부대로 급하게 복귀를 해서는 행정반이 아닌 내무반에 먼저 들러 나름 추리를 해둔 대로 이기

영 상병의 관물대에 걸린 커튼을 들추자 양말과 속옷 등이 돌돌 말려져 있던 방독면 깡통 속에 봉투가 이미 반쯤 뜯어져 나간 편지 한 통이 눈에 띄었다. 옛날 식 맞춤법이 눈에 익은 엄마의 글씨체였다. 내 눈에서 순간 불이 번쩍했다. 편지에는 내 안부를 묻는 내용과 돌아오는 생일날 부대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는 동료들과 가까운 매점에라도 들러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하는 이야기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다음 날 같은 보급과에 근무하고 있던 나연석 병장에게 자초지종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은 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의논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대로 마냥 넘어가기에 그것은 내게 너무나 답답하고 충격적인 일이었다. 행정반 최고선임인 나연석 병장은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의도인지 잘 알겠다고 나를 안심시킨 후 자기가 이기영 상병과 비밀리에 이야기를 먼저 해 보고 그 결과를 나중에 알려 주겠노라고 했다. 그리고 일과 후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내무반으로 돌아왔을 시간에 이기영 상병이 내 자리로 먼저 와서는 나를 잠깐 보자고 했다. 그는 내게 미안하다며 3만원 남짓한 돈을 주머니에서 꺼내 내게 내밀었다. 나머지 돈은 생기는 대로 주겠다는 말도 했다. 그가 내민 돈을 무심코 받았지만 이미 그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산산조각 나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전역은 여전히 1년여 시간이 남아 있었다. 이후 몇 개월 동안 단 한 차례 2만원 남짓 되는 돈을 추가로 그가 내게 전해 주었으나 그걸로 그의 상황은 모두 끝이 났다. 내게는 명확하게 그 차액을 받아 낼 생각이 이미 없었고, 그 또한 그걸 내게 전해 줄 생각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단지 군대라는 아주 특별한 관계에서 선임과 후임인 그와 나는 그 일로 인해 완전히 어색해져 버렸다. 군복을 입고 선임과 후임의 관계로 지냈지만 사적으로는 동생처럼 나를 대해 주었던 나연석 병장은 그해 겨울과 다음 해 봄의 다소 어중간했던 시기에 사단 보충대로 전역 대기 입소를 하면서 “탈 없이 잘 지내다 제대해라. 먼저 간다” 하는 말을 남기고 전역했다. 나연석 병장의 전역 이후 행정반 최고선임이 되었던 이기영 상병으로부터 이후 어떤 보복이나 불합리함을 당하지는 않았으나, 그와는 그의 전역 당일까지도 매우 서먹하고 불편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지내야만 했다.

초인종 소리에 문득 정신이 다시 돌아왔다. 종편 방송의 연속극이 끝나고 저녁 뉴스가 시작되는 시간에 아이들이 학원에서 집으로 함께 돌아왔다. 비에 젖은

우산을 제대로 털지도 않고 현관 안에 들였다며 집사람은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했다. 입이 튀어나온 아이들은 건성으로 인사를 하고는 각자의 방으로 방문을 확 닫고 들어가 버렸다. 집사람에게 혹시 맥주 사다 놓은 게 냉장고에 있느냐고 묻자 집사람은 살짝 눈을 흘기며 평생 술이라곤 입에 대지도 않으면서 무슨 맥주를 찾느냐 하는 핀잔을 주다가 금세 또 작년 생일 선물로 받아 두었는데 아직 마개도 따 보지 않은 거라며 와인 한 병과 과일 한 접시를 내어 왔다. 배가 불룩한 와인글라스 두 개를 절반씩 각기 채워 넣고 집사람과 연애 시절 둘이 걸어서 돌아다녔던 어디어디 위치한 동네들의 지명을 하나씩 생각해 내는 등 아주 시시콜콜한 옛날이야기를 자정이 가깝도록 두런두런 나누었다.

“그런데 나 군대에 있을 때 말이야. 5월에 개나리가 피었는데, 그 위로 눈이 또 막 내리더라니까……. 당신 믿을 수 있겠어? 그때 당신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말이야. 내 면회도 자주 오고…….”

“어머……. 와인 몇 모금에 벌써 취했나 봐. 생전 안 하던 군대 이야기를 다 하시고…….”

집사람은 내가 실없이 군대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자 안 하던 이야기를 갑자기 늘어놓는다 하며 핀잔을 한 차례 주고 아침에 출근은 안 할 거냐는 이야기를 끝으로 아직 채 비우지 않은 와인 잔과 과일 접시를 부엌으로 모두 치워 버렸다.

그날 이후 한 달 남짓한 시간이 지났을 무렵 부서에서 신규 프로젝트 담당을 맡고 있는 김영미 대리가 오전에 전자 결재로 품의서 하나를 올렸다. 품의서에는 신규 프로젝트 납품과 관련해서 3개 회사의 견적서 비교와 제품 및 업체 관련 정보 등이 상세히 첨부되어 있었다. 서류를 찬찬히 검토해 보던 중 궁금한 사항을 확인해 보기 위해 김영미 대리를 직접 불러서 물었다.

“일전에 사무실 방문했던 ‘○○테크’ 있었잖아? 견적서가 보이지를 않네?”

“제안서가 들어온 총 네 군데 회사에 최종 견적을 요청했는데, 그 회사만 마감 시간 전까지 견적이 들어오지 않아 제외하였습니다.”

“무슨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지? 직접 확인은 했고?”

“네. 없었습니다. 입찰 절차대로 진행된 건입니다. 아……. 참. 그런데 지난번 팀장님과 그쪽 업체 분 미팅 끝나고 나서 제가 엘리베이터까지 배웅을 해 드렸는데, 팀장님 생일이 여름 아니냐고 묻고, 또 졸업하신 대학교가 어디 학교 아니

냐고도 해서 제가 개인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확인해 드릴 수가 없다고 답변을 해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점심 전까지 조금 더 살펴보고 결재를 해 줄게…….”

고개를 가우똥하며 돌아서는 김영미 대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묘한 궁금증 하나가 내 머릿속에서 쉽사리 떠나지를 않았다.

“이른 아침 회사에까지 찾아와서 제안서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했던 이기영 상병은 왜 최종 입찰 견적서를 제 날짜에 맞게 보내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 개인 정보를 김영미 대리에게 물었다?”

그날 오후에는 기존 납품처 공장 설비 서베이 관련된 건으로 인천을 다녀와야 했다. 출발 전부터 비가 제법 내리던 탓인지 서울~인천 간 도로가 군데군데 막혀 사무실로 막 돌아왔을 무렵엔 이미 퇴근 시간이 가까워져 있었다. 자리에 앉아 주섬주섬 보고서 자료를 정리하려는데 회사 총무팀에서 우편물 하나를 내 자리로 보내어 왔다. 우체국 등기소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 편지봉투였는데, 발신인은 ‘이기영’으로 적혀 있었다.

봉투를 열어 자필로 쓴 편지 한 장과 ‘온라인환증서’로 10만 원권 금액이 동봉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는 혼잣말을 했다.

“이건 뭐야? 요즘엔 옛날처럼 ‘소액환’이란 명칭을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또 우체국에서 발행을 하는가 보네.”

편지지에 적힌 글씨를 읽어 내려가자 뻘뻘한 악필로 유명했던 이기영 상병이 작성해서 걸어 두었던 내무반 게시판의 ‘월(月)근무편성표’가 불현듯이 생각났다. 그리고 그의 편지를 다 읽고 나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왜 병장으로 전역한 그의 계급을 아직까지도 상병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 여전히 그와 관련된 모종의 트라우마가 내 의식 속 어딘가에 깊숙이 남아 있는 탓일까? 그리고 그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던 엄마의 소액환을 오늘 마침내 돌려받게 된 것일까?”

○○○ 팀장님

이미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옛날 제가 알고 있던 팀장님이시라면 제 사과를 어떤 식으로든 받아 주실 것이라 믿고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 너무 어린 나이였고, 순간적인 제 실수를 저로서도 어떻게 수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까마득한 그 시절로 돌아가 팀장님 앞에 떳떳한 모

습으로 설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하지 못하는 게 또 인생인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너무 늦었지만, 팀장님이 제게 부탁하셨던 그 등기 우편을 지금에서야 받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제 마음이 한결 좋겠습니다.

이기영 배상